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6. 10. 20. (화)	매 수	3매
담	당	부	서	인프라융합실 강태완 선임(☎031-478-0428)	
배	포	부	서	전략기획팀 이형석 팀장(☎031-478-0412)	
배	포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TS Korea, 강릉 ITS 세계총회서 국산 NPU의 교통 분야 실증 · 해외 진출 협력 추진

**- 22일 K-NPU · ITS 기업 기술교류 및 비즈니스 매칭 개최... 국내 현장 실증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협력 기반 마련 -**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회장 허청회, 이하 ‘ITS Korea’)는 오는 10월 22일(목)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강릉컨벤션센터 302호에서 국산 NPU의 교통 분야 활용 확대와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AI-ITS 혁신을 위한 K-NPU 전환지원 밋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의 일환으로, 국산 NPU(K-NPU) 기업과 ITS 기업 간 기술교류 및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국산 NPU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국내 교통 현장 실증을 거쳐 해외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 NPU(Neural Processing Unit): AI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

○ 행사에는 국산 NPU 사인 딥엑스, 모빌린트, 리벨리온, 퓨리오사에이아이와 ITS 기업인 엠큐닉, 스페이스인사이트, 바이다, 에스오에스랩, 라온로드, 뱀부스, 국산 NPU 기반 AI 서비스 중인 케이티를 비롯한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산 NPU의 ITS 분야 활용에 관심 있는 세계총회 참가자라면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 최근 교통정보 분석, 스마트 교차로, 도로교통 관제 등 ITS 분야에서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면서 AI 연산의 처리 성능과 전력효율, 운영비용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국산 NPU는 AI 기반 교통서비스의 새로운 기술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AI 모델과의 호환성, 성능 최적화, 현장 운영 환경에서의 안정성 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이에 ITS Korea는 국내 ITS 기업의 기술 수요와 국산 NPU 기업의 기술 지원 역량을 연결하여 실질적인 도입과 현장 실증을 위한 협력 기회를 확대한다.
- 이번 행사에서는 ITS 기업의 AI 활용사례와 기술 수요를 공유하고, 국산 NPU 기술 소개부터 실제 적용사례,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 먼저 ITS 기업들은 AI 기반 교통서비스와 주요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국산 NPU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술적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사항을 공유한다.
 - 이어 국산 NPU 기업 4개사가 각사 제품의 특징과 주요 적용사례를 발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도구(SDK) 제공과 AI 모델 최적화 등 기술지원 방안을 소개한다.
- 특히 국산 NPU 도입사례를 다루는 심층 발표(Deep-Dive)에서는 AI 모델 변환과 최적화 과정, 전환 전후 소비전력·발열 측정 결과 등을 공유하여 ITS 현장 적용 시 고려해야 할 기술적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 이어지는 1:1 비즈니스 매칭에서는 ITS 기업별 기술 수요를 바탕으로 SDK 지원, 전담 엔지니어를 통한 기술지원, 도입 비용 등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양 분야 기업이 기술적 요구사항과 지원 가능 범위를 확인하고, 향후 AI 모델 전환과 성능 검증, 국내 교통 현장 실증 및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 ITS Korea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산 NPU의 ITS 분야 도입을 지원하고, 국내 교통현장에서의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교통 분야는 도로·교차로·교통정보센터 등 다양한 현장에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운영환경에서 국산 NPU의 성능과 활용성을 검증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 향후 ITS Korea는 국산 NPU 기업과 ITS 기업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실증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운영 경험을 해외 ITS 사업 및 국제협력 기회와 연결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 허청회 ITS Korea 회장은 “AI 기술이 교통정보 분석과 스마트 교차로 등 다양한 ITS 서비스에 활용되면서 NPU의 성능과 효율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 “이번 행사가 국산 NPU 기술과 ITS 산업 현장의 수요를 연결하고, 국내 교통현장에서의 실증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어 “국내에서 검증된 기술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 ITS 시장에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술협력과 실증,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